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 총동창회 송년모임이 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2층 델리하우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애리기자

## “초심 잃지 않고 봉사·화합의 장 만들겠다”

### 본보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 송년회...원우에 감사장 수여 백혈병소아암협 등에 쌀 기부...올해 사업보고·내년 계획 공유도

“초심을 잃지 않고 원우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화합하는 모범적인 총동창회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 송년회가 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2층 델리하우스에서 1~11기 원우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송년회는 감사장 수여, 쌀 기부, 사업계획 및 경과보고, 공연 등 회원 간 온기를 나누는 행사로 치러졌다.

감사장 수여식에서 김미경·양성운·민정남 원우가 ‘기부상’을, 정미연·배란주·이희숙·황경림 원우가 ‘공로상’을, 양효숙 원우의 2명이 ‘협조상’을 받는 등 10여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

았다. 소외계층을 위한 쌀 기부는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선사했다.

이정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장은 쌍촌종합사회복지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원우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쌀을 전달했다.

총동창회는 2024년 사업보고를 통해 지난 3월 이정배 회장 취임 후 4월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5월 다문화가정 어린이초청행사, 7월 사회복지법인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에서의 배식 봉사, 9월 의료 기부 봉사, 10월 총동창회 친선골프대회 등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로는 3월 광주매일신문 가

족사랑걷기대회 참석, 4월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5월 어린이 초청 행사, 6월 위원회별 단합대회, 9월 총동창회 친선골프대회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하무대에서는 김태은 반도네오니스트와 김아람 소프라노의 공연이 겨울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정배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봉사·화합·비전·창조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올 한 해를 시작한 총동창회가 매일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며 “회원님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성원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완수할 수 있어 크나큰 애정과 감동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행식과 보여짐에 치중하지 않는 대신 가슴에 새겼던 초심을 지키겠다”며 “회원들과 함께 봉사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창조클럽 아카데미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는 “출범 10년이 지나면서 본보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가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 및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공약단체로 자리 잡았다”면서 “지역의 대표 CEO와 리더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가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그동안 수많은 원우를 배출했으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 3월 이정배 회장의 취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제1대 총동창회는 ‘화합과 봉사하는 창조클럽’을 슬로건으로 내걸어 사업 계획을 마련했으며 스포츠와 등산을 통한 회원들과의 친목은 물론 봉사활동을 진행해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나누는 총동창회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정은솔기자

### 목포해경, 올해 마지막 헌혈 행사 성료



목포해양경찰서는 5일 “전날 경찰서와 전유부대에서 올해 마지막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헌혈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해 매 분기 헌혈을 이어오고 있는 목포해경은 올 한 해 경찰서 직원 70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특히 정성우(사진) 경감은 매일 1회씩 총 12번의 헌혈을 실천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 경감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32년간 총 13회 생명 나눔을 실천해 헌혈유공자 금장을 받았으며, 주변에도 헌혈을 장려하는 ‘헌혈 전도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2025년에도 꾸준한 헌혈 행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소중한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 농어촌공 담양지사, 하반기 환경정화 활동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최근 대전면 소재 삼산저수지에서 하반기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김건경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을 비롯해 서원신 농지은행관리부장, 김효진 농지은행관리부 과장, 정광일 농어촌사업부 차장 및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산저수지 데크길 주변을 중심으로 저수지 내 유입된 낙시용품, 병, 캔 등 생활·영농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김건경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생산 원천인 관내 48개 저수지의 수질 보호와 함께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서해해경청, 명도복지관 감사패 수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명도복지관이 주최한 ‘명도 가족의 밤’ 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5일 밝혔다.

명도복지관은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한 해 동안 자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해해경청은 8년 넘게 이어온 지속적인 지원과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목포=정해선기자

## ‘비짓광주 SNS’ 공공브랜드 대상 2관왕 영예

### 광주관광공사·(주)더킹핀, 콘텐츠 역대 조회수 등...민·관 협력 결실

지역의 공공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5일 광주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관광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제2회 공공브랜드 대상에서 광주관광 홍보채널 ‘비짓광주 SNS’가 공익브랜드 부문 대상과 디지털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비짓광주 SNS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광주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국내외에 알리고, 광주를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브

랜딩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하고 있다. 이번 성과의 배경에는 비짓광주 운영기관인 광주관광공사(사장 김진강·사진 왼쪽)와 대행사 (주)더킹핀(대표이사 배미경·사진 오른쪽)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오랜 기간 구축한 긴밀한 협업 파트너십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광주관광공사는 지난 4월 광주관광 SNS 채널을 ‘비짓광주’로 리브랜딩하고 숏폼 콘텐츠 강화라는 전략적 개편을 단행했다.

이후 2019년부터 광주관광 SNS 채널 운영 대행 맡아왔던 (주)더킹핀은 국내 관광 트렌드인

원포인트 여행을 주제로 한 ‘찐덕투어’, 광주축제의 사전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한 ‘페스타 광주’ 등을 기획해 단일 콘텐츠 역대 최다 조회수 22만회, 전년 대비 팔로우 5천명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특색 있는 콘텐츠와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광주를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브랜드함으로써 다시 방문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골짜기 광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주)더킹핀은 2017년 광주를 기반으로 공공홍보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창업한 후 2019체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파트너로 참여했으며, 현재는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옛 유니버시



아드대회) 홍보마케팅 공식 대행사로 선정돼 국내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수희기자



## 조선이공대, 웰빙헬스케어 행복누리 봉사단 창단

조선이공대학교 HiVE센터는 “최근 웰빙헬스케어 분야의 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웰빙헬스케어 행복누리(HAPPY-NURI) 봉사단’을 창단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웰빙헬스케어 행복누리 봉사단’은 스포츠테이핑&마사지 전문가 양성과정과 뉴스포츠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한 지역민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달부터 봉사 활동을 하는 가운데 스포츠테이핑, 마사지, 뉴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의 신체적 건강을 지원하고 웰빙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나승희 웰빙헬스케어 행복누리 봉사단 지도교수는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통해 봉사단원들은 물론 지역민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자

## 조선대 환경공학과, 환경공학회 학술대회 잇단 수상

조선대학교는 5일 “조선대 환경공학과 학생들이 2024년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대회에서 종합설계 장려상, 논문상, TRAVEL AWARDS를 수상하며 뛰어난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다정·최혁준 학생은 ‘제12회 대학생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총 17개 대학 29개 팀 중 6위에 올라 장려상을 받았다.

해당 대회는 공학적 창의력과 설계능력을 갖춘 환경공학인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며, 조선대 학생들은 문덕현 교수의 지도로 ‘수산 폐자원 철담지 바이오차를 이용한 비소(As) 오염토양의 안정화 효율 평가’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은 연구에서 굴 및 홍합 껍데기에 철을 담지해 비소 오염토양을 효과적으로 안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박세현 학생팀의 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최용환 졸업생과 박상협 석박사통합과정생



은 ‘학술대회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는 ‘고압토양세척 기술을 이용한 유류로 오염된 주유소 토양의 정화’를 주제로, 세척 후 컷오프 크기 설정에 따른 오염물질 제거 효율을 비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박세현 석사과정생은 올해 처음 개최된 ‘TRAVEL AWARDS’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연구 활동과 학술 교류를 격려하기 위해 대한환경공학회에서 신선했던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대기자